



영화 '메리와 마녀의 꽃'의 한 장면(사진왼쪽)·영화 '몬스터 패밀리'의 한 장면.

애니메이션 영화 12월 극장가 점령

일본·미국·독일 등 세계 각국 다양한 작품들 개봉 예정

겨울방학 시즌이 점차 다가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어린이 관객은 물론 성인 관객도 겨냥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준비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일본·미국·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날아온 작품들이 많은 물론 마녀·사후 세계·괴물 등 다양한 소재로 완성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 마녀의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다... '메리와 마녀의 꽃'

메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곱슬머리를 빨강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 컴플렉스는 우연히 가게 된 마법 세계에서 메리를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천재 마녀로 만들어준다.

메리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스기사키 하나나는 '나의 컴플렉스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낼 때의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마법'이라고 했다.

요네바야시 히로마사 감독이 연출한 '메리와 마녀의 꽃'은 도시에 사는 시골 천재집으로 이사온 후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소녀 메리가 우연히 발견한 마녀의 꽃을 통해 마법 세계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판타지가 전해주는 박진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긴 메시지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일본 관객은 일본 최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지브리의 향기를 느낄 것이다.

요네바야시 감독과 제작자 니시무라 요시아키 등 스튜디오 포녹의 크리에이터와 스태프들은 대부분 지브리에서 실력을 쌓아 독립했다.

12월7일 개봉

◇ 믿고 보는 디즈니픽사... '코코'

'코코(감독 리 언크리치·애드리언 폴리아)'는 언제나 믿고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찬사를 받는 디즈니픽사 스튜디오의 새 작품이다.

북미 현지에서 지난 24일 개봉해 '저스티스 리그'를 제치고 전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흥행에도 성공하며 국내 애니메이션 팬의 관심을 모은다.

영화는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전설의 가수 에르네스토의 기타에 손을 댄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제작비로 약 2억 달러를 쏟아부은 대작답게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특히 어둠과 빛을 활용한 정교한 작화가 성인 관객에게도 충분히 통할 만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디즈니·픽사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인데, 이번 작품 역시 아름다운 OST가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다는 평가다.

내년 1월 개봉 예정.

◇ 괴물가족의 행복을 찾아서... '몬스터 패밀리'

독일 출신 호거 태프 감독이 연출한 '몬스터 패밀리'는 미국 위주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영화계에 도전장을 던진 유럽 영화다.

독일 작가 데이비드 사피어의 베스트셀러 '가족의 영광'(원제: Happy Family)이 원작인 이번 작품은, 만 나면 싸우기만 하는 '위시본' 가족이 드라큘라의 음모로 모두 몬스터로 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프랑켄슈타인·벡파이어·미이라 등으로 변한 다양한 캐릭터가 눈길을 끌고, 싸우기만 하던 가족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연말 가족영화로 인정맞춤이라는 평가다.

12월21일 개봉

◇ 그밖에 작품들

이밖에도 여우와 병아리 삼총사의 이야기를 그린 프랑스 애니메이션 '빅 배드 폭스'(감독 벤자민 레너·파트릭 암베르)(11월30일 개봉), 아이들의 친구 꼬마 기관차 토마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옮긴 '토마스와 친구들:그레이트 레이스'(감독 데이비드 스토크)(11월30일 개봉), 예수의 탄생을 동물들의 모험 이야기로 풀어낸 '더 크리스마스'(감독 티모시 레카트)(12월21일 개봉)도 준비돼 있다.

/뉴시스

KCC 에밋, 종료 1.8초 남기고 결승골... KT 잡고 6연승 질주

프로농구 전주 KCC가 6연승을 질주하며 2위에 올랐다.

지난 28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벌어진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부산 KT와의 경기에서 종료 1.8초를 남기고 터진 안드레 에밋의 결승골에 힘입어 79-77로 승리했다.

6연승을 달린 KCC는 12승5패로 2위 원주 DB(10승4패)와 승차점은 3위를 유지했다.

에밋은 77-77로 팽팽한 4쿼터 종료 1.8초를 남기고 결승 마들라인지 슛을 성공하는 등 27점을 쓸어 담았다.

KT(2승14패)는 3연패 늪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28일 안양 KCC인삼공사와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김기운과 김민욱이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김기운은 12점 8어시스트로 인삼공사로 옮겨간 이재도의 공백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리온 윌리엄스도 23점(11리바운드)으로 분전했다.

KT와 인삼공사는 이재도, 김승원, 김기운, 김민욱을 주고받는 2대1 트레이드를 했다.

인양에서 처음 경기를 치른 허훈은 8점(3리바운드)을 올렸다.



KCC 안드레 에밋

허훈은 28일 중국과의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지역예선을 뛰고 온 탓에 출전시간이 많지 않았다.

KCC는 초반 주도권을 잡는 듯 했지만 김기운과 그의 손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공격루트에 고전했다.

국가대표 슈터 이정현의 침묵도 아쉬웠다. 3쿼터 초반에는 리온 윌리엄스와 웬델 맥키네스의 공격을 막지 못해 46-56, 10점차까지 뒤졌다.

그러나 해결사 에밋이 적극적인 1대1 공격을 통해 분위기를 바꿨다.

에밋은 쿼터 막판 연속으로 6점을 몰아쳤고 이정현이 3쿼터 종료 직전에 속공을 성공해 58-56 역전에 성공했다.

에밋과 이정현은 3쿼터에서 각각 8점, 6점을 올리며 역전을 주도했다.

KCC는 4쿼터 초반 이정현 에밋의 연속 득점에 이승진의 연속 골밑 4득점으로 분위기를 압도했다.

KT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맥키네스와 김기운의 연속 3점슛과 교체로 들어온 박지훈이 연속으로 4점을 올리며 KCC를 압박했다.

KT는 74-77로 뒤진 4쿼터 종료 47.4초를 남기고 김기운의 패스를 받은 김민욱이 왼쪽 코너에서 3점슛을 꽂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대기는 에밋의 묶어냈다. 1.8초를 남기고 왼쪽 코너 지점에서 결승골을 성공했다.

/뉴시스

손흥민 '교체출전' 토트넘, 레스터 시티에 1-2 패배 선두권 도약 실패

손흥민이 교체 출전한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 원정경기서 패배했다.

토트넘은 29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레스터시티와 14라운드 경기에서 1-2로 졌다.

이날 패배로 3경기 연속 무승(1무2패)에 빠진 토트넘은 7승4무4승(점24)로 선두권 도약에 실패했다.

순위로 5위로 밀렸다. 손흥민은 선발이 아닌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팀이 0-2로 뒤진 후반 12분 무사 시소코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공격포인트 기록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전반에만 2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전반 12분 제이미 바디에 선제골, 전반 추가시간에는 라이드 마레즈에 추가골을 허용했다.

토트넘은 후반 들어 교체 카드를 통해 반전을 노렸다.

후반 12분 손흥민을 시작으로 페르난도 요렌테, 에릭 라멜라가 잇따라 투입됐다. 후반 34분 헤라케인이 추격골을 터뜨리며 레스터 시티를 압박했다.



분위기를 탄 토트넘은 파상공세를 펼치며 동점골 사냥에 나섰지만 골문이 따르지 않았다.

/뉴시스

삼성 이영욱 ↔ KIA 한기주 1대1 트레이드

삼성 라이온즈가 29일 외야수 이영욱(32)을 KIA 타이거즈로 보내고 KIA 투수 한기주(30)를 데려오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번 트레이드는 전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두 선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려는 양 팀간의 협의에 따라 성사됐다.

지난 2008년 2차 6라운드 41순위로 삼성에 입단했던 이영욱은 521경기에 출전, 통산 타율 0.245에 12홈런 108타점을 기록했다.

이영욱은 올해 6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한기주는 지난 2006년 1차지명을 통해 KIA에 입단했고, 통산 289경기에 등판해 25승 28패 71세이브 9홀드, 평균자책점 3.63의 성적을 올렸다.

한기주는 입단 당시부터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부상, 수술, 재활을 반복했다.

올해 1군 무대에 단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다.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13경기(180닝)에 등판해 1승 1홀드 평균자책점 5.00을 기록했다.

/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 대전 내일 고종수 감독 취임식 개최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대전 시티즌의 새 사령탑 고종수 감독이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대전은 "제 11대 고종수 신임 감독이 오는 12월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취임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고 신임 감독의 취임을 축하하는 공식행사 및 기자회견 등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고 감독은 각오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힌 예정이다.

취임식 후에는 선수단과의 첫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